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디지털타임스 (25 May 2015, ROK)

Page: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52602102360673001

오피니언

[사설] 노동 경쟁력의 위기, 현실 직시하라

입력: 2015-05-25 19:01
[2015년 05월 26일자 23면 기사]

[단독] 메르스 예방법, 손만 씻지 말고 스마트폰도 살균해야

우리나라의 노동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옮긴 지 이미 오래다. 세계 각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 공장에서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7.8시간으로 미국의 14.8시간에 비해 두 배가량 많다. 상대적으로 저급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고 알려진 중국도 17.9시간이면 차 한 대를 만든다.

우리나라의 제조 노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가 발표한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는 더욱 암울하다. 우리나라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6.5달러로 [일본](#)(36.6달러), [싱가포르](#)(42.0달러), [홍콩](#)(40.4달러)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 낮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연간)도 한국은 5만8700달러에 머문 반면 싱가포르는 9만 2000달러에 이른다. 노동생산력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한국보다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속속 국외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방한 당시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이 인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최근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 [집중](#)했던 미국의 제조기업들이 생산공장을 잇따라 본토로 회귀시키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중국 내 생산시설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6억달러(약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너럴모터스(GM)도 미국 내 생산공장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도 터치스크린 등을 제조하는 구글 글라스 공장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주 실리콘밸리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미국보다 비용을 불과 10%밖에 줄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들이 본토로 회귀한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 제조시간이 불과 3시간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국내 제조시설 운영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본토에서 생산기지를 움직일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 덕에 미국 경제는 리먼사태 이후 5년 이상 지속되던 불황의 늪을 빠져나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수 억 달러의 투자가 잇따르고 생산시설 재가동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늘면서 소비심리도 늘어나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 활성화 등을 촉진해 저성장 늪을 빠져나가려고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미국의 이같은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담론'에만 그친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수립'을 제안했고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발표됐지만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아시아 경쟁국들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노동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한번쯤 되돌아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기업과 생산공장이 국내에 존재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